

최근의 녹용 국제연구 동향

이 내용은 한의사협회에서 발행하는 「한의신문」에 게재된 것으로 한의사 관점에서 이번 ASPT 심포지엄을 어떻게 평가하고 있는지 소개한다. <편집자 주>

박성규/박성규한의원장

지난 4월 9일부터 12일까지 캐나다에서는 녹용과 관련된 과학자 및 생산기술에 관한 심포지엄이 있었다. 경희대학교 본초학교실의 안덕균 교수와 함께 다녀온 최근의 녹용 연구 동향은 한의사 회원들에게 도움을 줄 수 있는 유익한 정보들이 많았다.

ASPT라는 약자로 표시되는 다소 생소한 이번 화회는 캐나다의 앨버타 대학에서 연구 중인 한국인 과학자에 의해 발의되고 주관되어진 국제 학술대회이다. 앨버타 지역은 캐나다에서도 가장 목장이 많으며 현재 이 대학에는 한국의 축산과 출신 교수들이 사슴에 대하여 연구중인 곳이다.

한국은 세계 최대의 녹용 소비국가로서 한국 출신 과학자들이 주축이 되어 녹용관련 연구를 주도하는 것은 매우 바람직한 일이며 한의사들이 적극 참여하여 우수한 품질의 녹용을 생산하도록 주문해야 될 것이다.

심포지엄은 3일간에 걸쳐 진행되었는데 첫날은 녹용을 생산하기 위한 기초분야에 대한 발표, 둘째 날은 녹용의 임상효과에 대한 발표가 있었고 마지막날은 영양학과 관련된 주제로 진행되었다.

녹용의 생산과 관련된 첫날의 발표 중에는 녹용을 세계에서 가장 크게 성장시키는 연구와 암사슴에서 녹용을 성장시키는 기술에 관한 연구가 주목을 끌었다.

녹용을 약재로 사용하는 한의사들은 사슴의

최종 산물인 녹용의 품질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지만 정작 녹용이 사슴의 사육 기술이나 품종교배 또는 사료에 따라서 크기나 무게가 달라진다는 점에 대해서는 주목하지 못했던 것이 사실이었다.

산지에 따라서 품질의 차이가 있는 것으로 믿어왔던 전통적인 생각들은 사슴이 자연상태에서 서식하던 시대의 분류방법이 되었다.

세계 각국의 녹용생산국들은 이미 우량 품종간의 교배에 의한 사슴의 사육에 따라 녹용 생산을 하고 있었다.

한 예로 그곳에서 만난 미국인 목장주인은 뉴질랜드에서 많이 사육하고 있는 적록을 700여마리나 사육하고 있고, 몇 년 전에 방문했던 뉴질랜드의 목장에서는 북미산 사슴을 들여와 원용과 똑같은 형태의 가지모양을 가진 녹용을 생산하고 있다.

따라서 생산국가별로 분류하던 녹용의 감별 방법은 이미 옛 분류법이 되고 말았다. 이제는 녹용의 분골에서 가장 많이 분포하는 성분을 연구하고 이 성분을 사슴 사료에 첨가하여 녹용의 상·중·하대부위에서 골고루 퍼지도록 하여 녹용의 효능을 강화시키는 연구가 진행중이었다.

이 연구는 한국 과학자가 주도하고 있어 사슴의 사육 조건이 불리한 국내 농가의 품질향상을 추구할 수 있으리라 기대되고 있다.

녹용의 임상 효과에 대한 발표에서 주목할



심포지엄에 참가한 국내 인사들이 한자리에 모여 상견례를 나누었다

만한 내용은 여러 가지가 있었다. 그 중에서 한국을 수 차례 방문했던 외국의 학자는 녹용의 임상적 효능에 대한 한의학적인 내용을 영문으로 발표해 서양인에게 녹용의 효과를 알리는 계기가 되었다. 호주의 외과전문분야는 녹용의 연구에 유전자(DNA)방법을 도입하여 이미 상당한 수준의 연구결과가 발표되었으며 기존의 녹용 활용이외에 이러한 연구 발표에 의거하여 새로운 임상영역을 제시하기도 하였다.

운동을 즐기는 호주에서는 매년 수많은 스포츠 손상이 발생하는데 운동 선수에게 녹용을 투여하여 연골의 재생 및 부상방지에 효과가 있음을 발표하였다.

이번에 만난 외국인들의 달라진 점은 녹용을 한국을 비롯한 아시아시장에 수출만 하던 종래의 태도에서 벗어나 서양인들 자신도 녹용의 효능을 인정하여 스스로 녹용을 복용하는 인구가 놀라운 속도로 증가하였다는 사실이다.

북미지역의 녹용 소비량은 이미 우리의 상상을 뛰어넘어 현지의 녹용 생산업자들은 현지에서 녹용관련 제품을 개발하여 한국에 대한 녹용 수출은 상대적으로 비중이 약해지기도 하였다.

그러나 북미지역의 녹용 제품은 녹용을 분말하여 캡슐에 포장한 것으로 한의사의 관점에서 보면 단순히 녹용만을 분말하여 복용하면 부위에 따른 구분이 없어 칼슘의 과다 섭취에 따른 부작용이 우려되며, 녹용의 탈과 같은 이물질이 정제되지 않아 미생물 등이 발견되는 문제점등을 지적할 수 있다.

임상효능에 대한 외국의 연구방향은 골다공증과 관절염치료 및 연골재생 등에 대한 논문이 주종을 이루어 이미 발표된 골다공증에 대한 국내 한의대 실험논문의 영향을 받은 흔적이 뚜렷하여 세계의 연구방향을 우리가 주도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또한 세계 학술대회에서 우리의 연구 성과를 효과적으로 발표하기 위해서는 영어 능력을 갖춘 전문적인 인력을 양성할 필요성도 절실하게 체험하였다.

한국이 녹용의 최대 수입국가로서 소비자의 권리를 확보하기 위해서는 녹용과 관련된 분야를 망라한 녹용학회를 결성해야 하고, 최종 소비자로서 한의사들이 주도적인 역할을 한다면 품질 좋은 녹용을 공급하도록 요구하며 저렴한 가격에 구입할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될 수 있으리라 기대된다.*